

# 광주·전남 메르스 유언비어 난무...현혹되지 마세요

### “사우디 다녀왔다” 거짓말...구치소 안가려 의심환자 행세 곳곳서 “환자 입원·치료했다” 괴담에 문의전화 폭주도 “확진환자가 식당에서 식사” 헛소문 등 보건당국 몸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괴담(怪談)이 지역 사회를 휩쓸고 있다.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온·오프라인에 넘쳐나면서 행정 당국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하소연하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지역민들의 우려도 찾아들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괴담에 휘둘러=광주광산보건소는 지난 13일 하룻동안 메르스 허위 신고자로 인해 남비면 입점한 행정력에 대

한 행사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보건소의 경우 손씨(37)씨가 지난 13일 광주지역 국가직정격리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며 허위 신고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손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입국 기록은 커녕, 여권조차 없는데도 메르스 감염

사를 받아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 광산보건소는 당시 손씨 이송을 위해 직원 4명을 격리병원으로 파견하는가 하면, 2차 감염을 막겠다며 손씨 거주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 및 방역 활동을 벌였다. 광산보건소는 15일 긴박한 상황에서 자치단체 행정력을 낭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손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영광보건소도 지난 12일 구치소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 의심환자 행세를 한 김모(35)씨로 인해 온갖 비상 방역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기소중지자로 전락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영광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의심환자 행

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언비어도 심각한 수준이다. 화순에서는 한 때 메르스 확진환자가 지역 A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의 확인 전화가 폭주했다. 화순군은 화순 병·의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지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려, 지난 12일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화순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창군과 인접지역인 담양군도 순창 주민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A씨 가족의 담양 음식점 운영, 담양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허위 사실이 떠돌면서 진위 파악 및 해명에 곤혹을 치러야 했다.

보성 메르스 확진환자가 여수 결혼식장을 방문한 뒤 여수에서는 ‘여수시 의사회’ 명의로 ‘평택성모병원 실험결과 메르스 공기 감염 가능’ 내용을 담은 허위 문자메시지가 나돌았다. 평택 한 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60대 남성이 고향인 고흥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것과 관련해서도 고흥 지역에서는 ‘메르스로 사망했다’는 헛소문이 돌았다.

곡성군도 지난 12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곡성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져 지역민들의 문의전화와 잇따랐다.

◇괴담 유포자 처벌, 성숙한 시민의식=각종 메르스 관련 괴담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 등은 밀려드는 민원인들의 전화 공세로 인해 방역 업무를 비롯, 행정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민들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대응을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운영 등에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 메르스에...광주·전남 혈액수급 비상

### 단체헌혈 취소·연기 잇따라 일부 수혈용 농축혈소판 ‘바닥’

메르스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혈액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염 속도보다 불안 불신으로 인한 집단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혈액수급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헌혈을 하려던 학교 등이 단체 헌혈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일부 수혈용 농축혈소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7일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단체헌혈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학교·일반기업 등은 모두 22곳(약 2000명)이다.

한꺼번에 수많은 단체가 예약을 취소·연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애초 이들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단체헌혈을 할

예정이었다. 개인헌혈자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개인헌혈자 수는 모두 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0건 보다 216명(19.63%) 감소했다.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과 맞물려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전남지역에 첫 메르스 양성판정 환자가 나오면서 혈액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현재 수혈용 농축혈소판 보유량은 A형(0.9일)·B형(1.3일)·O형(1.5일)·AB형(0.8일)이다. 농축혈소판 적정보유량이 5일분인 점을 감안하면 실보유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메르스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외부인과 접촉에 의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헌혈을 자제하는 것 같다”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 단속 실랑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광주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지선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항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어이없는 행정에 현대건설 추가 지원 거절 주월초 통학버스비 5억원 떼일 판

### 유정심 시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 지원비 5억여원을 현대건설로부터 떼일 처지에 놓였다. 임시휴교 중인 주월초를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 현장사무소로 사용 중인 현대건설이 당초 약속했던 통학버스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4일 “주월초가 광주U대회 선수촌 현장사무소로 사용되면서 현대건설이 인근 학교로 배치분산된 학생들의 통학버스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교육

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체 통학비용 7억원 중 2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주월초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휴교를 결정한 뒤 선수촌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통학버스 비용을 받기로 하고 학생들을 화정초, 농성초, 염주초에 분산 배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7월 현대건설에 공문을 발송해 임시휴교 32개월간 13억4000만원의 통학버스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해 10월 답신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운동장 인조잔디 시공비를 지원

할 예정”이라며 “통학버스 2억원, 인조잔디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건설은 2013년 3월 주월초 통학버스비의 명목으로 3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학버스 지원은 끝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후 통학버스 지원비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유 위원장이 이를 지적하자 광주시교육청은 뒤늦게 현대건설에 실제 발생한 통학버스비용 7억원 중 나머지 5억여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 위원장은 “주월초 휴교 결정 당시 통학버스 지원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대건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성격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2억원 송금 이후 추가 지원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추가 금액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유사단체 설립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2명 법정 구속

### 광주지법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6개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B(64)씨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10개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다.

A씨는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검찰 수사를 빌미로 윤 시장 측근에게 접근, 5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역 유권자단체 대표로 지난 2013년 11월께 자칭 ‘윤장현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미국 대학 분교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처럼 속여 학위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른바 B씨의 선대위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안철수 광주 방문 때 행패 4명 징역 4개월·집유 1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14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 광주 방문 과정에서 방송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일반공방행 등) 등으로 기소된 A(35)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철수 전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7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MBC 앞 도로에서 안 전 대표가 면담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가 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무기징역 재소자 징역형 추가 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60대 남성이 불의를 보던 동료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39분께 광주교도소 내 자립형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수형자 A(46)씨가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다고 화살로 가지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보상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
|--------------------|----------------------|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